

- 주요 뉴스: 연준 관계자, 11월 FOMC에서 추가 빅컷 가능성에 엇갈린 입장
 - 중국 8월 청년 실업률, 새 통계방식 적용 이후 최고치 경신
 -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상호공격 격화, 미국은 외교적 해결 노력 지속
 - BOJ, 기준금리 0.25%로 동결. 우에다 총재는 추가 인상에 신중한 입장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주가는 차익매물 등으로 약보합

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강보합[+0.1%], 금리 상승[+3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주요 지표 발표 부재 속 소폭 하락, 다우지수는 강보합
유로 Stoxx600지수는 대형주 약세로 1.4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BOJ 우에다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상승
유로화 가치는 보합, 엔화 가치는 0.9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 속 상승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29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32.5원, 0.04% 하락). 한국 CDS 상승

		9/20일	9/19일	전일대비			9/20일	9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702.6	5,713.6	-0.19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4%	3.71%	+3bp
	유럽	514.26	521.67	-1.42%		독일	2.21%	2.20%	+1bp
	중국	2,736.8	2,736.0	+0.03%		영국	3.90%	3.89%	+1bp
	일본	37,724	37,155	+1.53%	CDS 5y	한국	31bp	30bp	+1bp
	한국	2,593.4	2,580.8	+0.49%		중국	60bp	57bp	+3bp
환율	달러지수	100.72	100.64	+0.11%	위험 지표	EMBI+	393	392	+1bp
	유로화	1.1162	1.1162	0.00%		VIX	16.15	16.33	-1.10%
	엔화	143.85	142.63	-0.85%		WTI유	71.92	71.95	-0.04%
	위안화	7.0470	7.0627	+0.22%	원자재	구리	428.2	428.6	-0.10%
	원화	1,333.0	1,329.2	-0.29%		금	2,621.9	2,586.7	+1.3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관계자, 11월 FOMC에서 추가 빅컷 가능성에 엇갈린 입장

- 윌러 이사는 8월 인플레이션이 강한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 시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있었다고 진단하고, 지표들이 계속해서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언급
-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윌러 이사의 발언 이후 금리선물에 반영된 11월 추가 빅컷 확률은 52%로 상승
- 반면 또다른 매파인 보우먼 이사는 중립적인 정책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2%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,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너무 이르게 승리를 선언했다고 비판
- 도이체뱅크는 2001년과 2007년, 그리고 이번까지 빅컷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세 번의 시점을 비교한 결과 이번 결정은 과거에 비해 긴급성이 낮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중국 8월 청년 실업률, 새 통계방식 적용 이후 최고치 경신

- 국가통계국은 8월 16~24세 청년 실업률이 18.8%로 기존 최고 기록인 7월의 17.1%보다 높아졌다고 발표. 25~29세 실업률도 전월 6.5%에서 6.9%로 높아졌으며, 30~59세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.9%로 집계
-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.3%로 치솟자 통계 발표를 중단하고, 12월부터 재학생을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. 이번 청년 실업률의 상승은 1200만명에 달하는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

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상호공격 격화, 미국은 외교적 해결 노력 지속

- 이스라엘군은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하여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발표.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일련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

- 통신기기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선언한 헤즈볼라에 앞서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.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
-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,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

■ BOJ, 기준금리 0.25%로 동결. 우에다 총재는 추가 인상에 신중한 입장

- 우에다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며,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언급.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는 세계경제와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

■ ECB 라가르드 총재, 세계경제 1920년대 대공황과 비슷한 압력에 직면

-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경제적 국수주의, 세계교역 붕괴 등 1920년대 대공황을 야기한 것과 비슷한 압력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,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불확실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

■ BOE 통화정책위원, 정책금리 장기 동결 후 빠른 인하가 더 바람직

- 캐서린 만 통화정책위원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금리를 오랜 기간 제약적으로 유지한 이후에 보다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낫다며 금리 인하 개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
- 만 위원은 전월 BOE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다른 3명의 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으며, 지난 19일 금리동결 때는 찬성표를 던진 강경 매파로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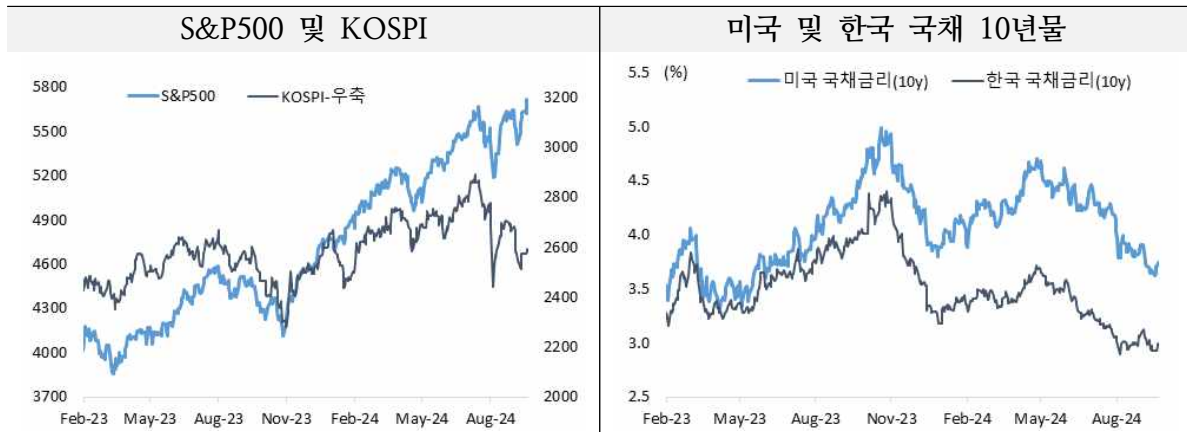
■ 중국,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핵심 규제완화 검토

-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▲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후커우(호적) 없는 비거주민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▲주택 구매 시 더 적은 계약금과 낮은 대출금리 적용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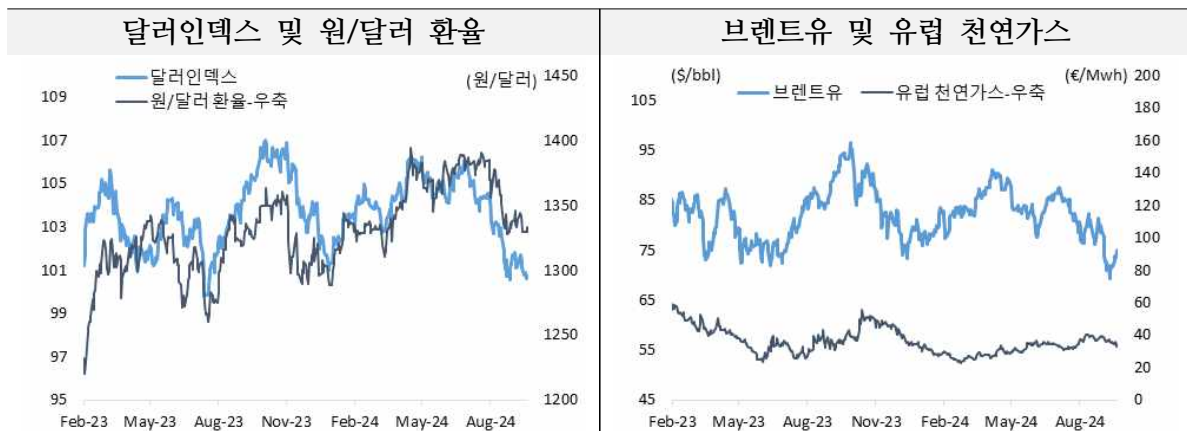
■ 영국 8월말 기준 공공부채 2.77조 파운드, GDP의 100%로 추산

- 동 비율은 1년 만에 4.3%p 상승한 것이며,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공공부채가 GDP의 100%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61년 3월 이후 처음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